**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사람**

<행 7:20-36>

20 그 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21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22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23 나이가 사십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24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26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27 그 동무를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8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29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30 사십 년이 차매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31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32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33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34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35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36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사십 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메시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고, 실패와 좌절을 통해 내려놓음을 배우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린 사람이다.

1.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는 사람

2. 실패와 좌절을 통해 내려놓음을 배우는 사람

3. 거룩하신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린 사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다들 살면서 한번쯤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신 없이 바쁘게 살다가 문득,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점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열심히 사는 게 다가 아니었는데, 처음부터 나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이제까지 쉼 없이 달려왔구나, 뒤늦게 깨닫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지 않은 저이지만, 제게도 살면서 후회했던 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은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삶이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군요. 당시 저는 한 걸음도 제 스스로 개척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에 아무런 방향성도 없이 허공을 향해 한숨만 내쉬며 지내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을 꼽으라 해도 역시 저는 그 때를 언급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때에야 비로소 스스로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를 질문할 수 있었고, 그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지요? 저는 이 가사가 참 와 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부터,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나를 위해 하나님을 붙드는 것, 어쩌면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방식일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의해 붙들리기보다, 이제 내가 하나님에 의해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기에 충분할 만큼 매력적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당신의 아름다운 뜻을 위해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사 42:1)”

이런 맥락에서 저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라는 처음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길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쓰임 받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 직전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설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쓰임 받게 되었는가를 요약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과, 그가 자신의 설교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저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쓰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단연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인들의 수효가 점점 늘어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이집트 왕 바로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자애가 태어나면 그대로 두고 남자애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모두 던져 죽여라.”

모세는 이 살벌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인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아이를 낳아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이를 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그 부모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판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쩝니까? 부모의 눈에 그 아이가 평범한 아이로 보이지 않습니다. 차마 아이를 강에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부모는 집에서 몰래 아이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감히 그들은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 그 엄마가 열 달 동안 배불러 있다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 이게 어디 숨길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지금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본문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부모의 눈에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눈으로’ 본 아이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모세의 부모는 그 아들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너무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가족 모두의 생명을 담보하고서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봐야겠다는, 사생결단에 이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그 일이 실현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만약 실패할 경우 너무도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모세 부모가 취했던 이 비범한 행동은 ‘모성애’라는 일반적인 개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즉, 아이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 그저 ‘부모의 눈’에 머물러 있었다면, 결코 그들은 그 살벌한 왕의 명령을 극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에 온전히 사로잡혔을 때, 그들은 아이의 생명에 자신들의 생명을 기꺼이 얽어 매고, 그 모두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에 합당한 신앙고백을 삶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발휘한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처럼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그들은 기꺼이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섰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은 이후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숨죽여 아이를 기르는 가운데, 어느덧 기적과 같은 석 달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이의 존재를 숨길 수 없는 때가 됩니다. 부모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 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누이에게 상황을 지켜보라고 당부합니다. 즉 모세의 부모는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이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나일 강으로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상자를 열어보고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임을 알아차립니다. 그 순간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다가갑니다. 자기가 그 아이의 유모가 될 만한 좋은 히브리 여인을 추천해도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것 또한 쉬운 행동은 아닙니다. 온 가족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 믿음으로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바로의 딸은 너그럽게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누이는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데려옵니다. 그것은 곧 모세의 친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젖을 뗄 때까지 친모에 의해 양육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나이 사십이 되었을 때, 모세의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나이가 사십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라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이집트식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집트인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동족 히브리인에 대한 피의 끌림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이 사십이 되어서야 동족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했다는 것은, 이집트 왕자로 살아온 그간의 삶이 크게 불편하거나 괴롭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나이 사십이 되었을 때, 무슨 연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마음에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집트인의 노예로 고통스런 나날을 살고 있는 그 형제 이스라엘인들을 돌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 결단을 결코 평범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집트 왕자의 입장에서 그가 자기 동족을 향해, 그저 동정의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괴롭히는 것을 목격하고 모세는, 그 자리에서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입니다. 뒤에 알겠지만, 이집트 왕자는 능히 그래도 됐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자연스런 감정의 움직임을 따라, 그는 압제 받는 동족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는 스스로에게 이스라엘 족속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면서, 동족의 고통에 자신을 얽어 매기로 작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행동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24-25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어쩌면 이 당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들의 생명에 자신들의 생명을 얽어 매었던 모세 부모의 믿음은, 그 아들 모세에게도 고스란히 전수됩니다. 그는 왕궁에서의 편안하고 이기적인 삶을 포기하고, 동족의 고통에 자신을 얽어 매는 고난의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믿음으로 서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위험한 길이요, 손해와 희생이 예상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에 기꺼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두려움과 이기심을 넘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사람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 내려놓음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 하나를 쳐 죽이고 모세는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춥니다. 이튿날 다시 그 곳에 나가 보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동족끼리 왜 서로 해치느냐며, 그들을 화해시키려 합니다. 그러자 그 싸움에서 우세하던 사람이 모세를 밀치면서 말합니다.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죽일 작정이냐?”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엄청난 실망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는 그의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건 모세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사실이 탄로났으니, 이제 그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 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 소문을 듣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찾았다고 출애굽기는 기록합니다. 이제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편안한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로 선택한 대가가 고작 이것이란 말입니까?

이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날의 선택을 후회하며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왕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딘가 다른 살 만한 곳으로 가서, 그가 가진 지혜와 언변을 이용해 더 악착같이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길은 뭐겠습니까? 힘들지만 자신이 믿음으로 선택한 길에 우직하게 머물러 있으면서, 그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후자였습니다. 바로의 낯을 피해 도망가다 보니 어느덧 미디안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잠시 우물 곁에 앉아 쉬고 있는데, 한 무리의 여인들이 양떼를 몰고 와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 합니다. 그들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일곱 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우락부락한 남자 몇이 역시 양떼를 몰고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힘으로 그 여자 목자들을 밀쳐내고 우물을 독차지하려 합니다. 이를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의 현장에 또 끼어듭니다. 그 깡패 같은 남자들을 밀쳐내고는, 이드로의 딸들이 양 떼에게 물 먹이는 것을 도와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세의 마음은 여전히, 강자들의 압제 하에 고통 받는 약자들에게로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큰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믿음으로 결단한 길에 여전히 우직하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후 모세는 그 이드로의 딸 중 하나인 십보라와 결혼해 아들 둘을 낳아 기르며, 세상에서 잊혀진 양치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첫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가면서 그가 왕궁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지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 왕자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불리한 정체성을 믿음으로 선택한 바 있었던 모세는, 이제 또다시 하나님께서 두신 그 초라한 자리에서 ‘나그네’요, ‘목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라는 새 정체성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 초라하고 고통스런 삶을 묵묵히 견뎌가면서 모세는, 비로소 이집트에서 힘겹게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동족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과거에 그는 자신이 가진 힘과 지혜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어쩌면 그때 그는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인 나를 이제까지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기대를 철저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때는 사십 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가진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이집트 사람 하나를 쳐 죽인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언변을 가지고 동족간의 화해를 이루기는커녕,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는 동족의 질문 앞에서,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결국 화려한 왕궁을 떠나 초라한 광야에까지 이르면서, 모세는 자신의 그 실패를 통해 철저한 내려놓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가 이전에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새롭게 빚어져 갑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배운 모든 언변과 학문이 이제는 별 쓸모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양들의 생리를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목양의 기술과,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지리적 지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후에 모세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목자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코스였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때 그것을 조금이라도 예상했을 리 없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사명을 맡기실 때, 그가 얼마나 겸손한, 아니 겸손함을 넘어, 얼마나 심약한 사람이 되어 있나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4장 10절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을 굽히지 않으시니까, 13절에서 그는 거의 울먹이듯 호소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된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던 시절에 했던 실패를 통해 모세는, 비로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의 삶에 그 실패가 없었다면, 과연 그는 이전에 그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에게 그 좌절의 순간이 없었다면, 과연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이해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나 실패와 좌절로 귀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삶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만난다면, 그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한 일에 대해, 혹 지금 실망하거나 후회하고 계십니까? 만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무언가를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절대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또한 내가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쉽사리 그것을 실패라 규정하지도 마십시오. 그로 인해 낙심하여 또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도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권면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고난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겪는 고난은 언제나 유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후에 비록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지라도, 변함없이 그 믿음의 길에 서서 겸손히 내려놓음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이 흘렀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보다 자세히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는 이집트와 시내 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로, 가시가 많아 가시 떨기나무라고도 불립니다. 성경에서 이 떨기나무는 주로 고난과 비참, 그리고 절망의 상황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의 떨기나무 아래에 둔 다음, 자신은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통곡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 이 떨기나무는, 하나님 대신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건조하고 소금기 많은 땅,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편,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대조되어 등장하는 것은 물 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사람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에도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막의 떨기나무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외롭고 비참한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을 통해 모세의 시선을 사로잡으십니다. 모세가 보니까 저만치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리 신기한 현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뜨겁고 건조한 그 지역의 기후로 인해,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또한 그것이 불타 없어지는 것은, 목자들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양떼를 몰고 광야를 다니는 가운데 때때로 만나는 떨기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아마도 모세는 그 모습이 꼭 자기와 같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광야로 들어와 양치기의 삶을 산 지 어언 사십 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 당한 자신의 인생은, 불 붙은 떨기나무처럼 이렇게 끝나 버리고 마는구나,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의 마음에 동족을 향한 안타까움과 부담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면, 어쩌면 그 떨기나무의 모습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현실을 연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집트에서의 사백 년 종살이가 끝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광야의 떨기나무를 불태워 버리시듯, 혹 이대로 영영 그 백성을 버리시려는 것인가, 그는 번민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날도 불붙은 떨기나무를 바라보며 이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돌리려는데, 문득 이번엔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반사적으로 모세의 눈이 다시 그 불붙은 나무를 향합니다. 이럴 수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타지 않고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사라지기는커녕, 그 나무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불꽃에 의해 더 선명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주석했습니다. “그 순간 모세가 보았던 것은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태우지 않는 불이었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 모세가 본 것은 그 고난의 자리에 ‘태우지 않는 불’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태우지 않는 불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 모세의 초점은 자신과 동족의 비참한 처지로부터,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로 자연스럽게 옮겨갑니다. 이제 내 인생이 끝장났구나 생각하던 그 시점에, 오히려 그의 인생에 새로운 사명의 불을 지피시는 하나님과, 그는 극적으로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려고 모세는 그 태우지 않는 불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제야 모세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며 급기야 얼굴을 가리고 맙니다. 그리고 들려온 말씀을 따라 황급히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그 순간,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가 하는 의문과, 지나간 삶 속에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것들에 대한 미련이 깨끗이 불타 없어지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그는 벌거벗은 듯 세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처럼 ‘태우지 않는 불’로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에 온전히 사로잡힌 모세는, 이때 이후로 더 이상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장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힙니다. 그가 쥐고 있던 삶의 주권은 이제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양됩니다. 이제부터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가 아무리 자신의 무능을 호소해도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와 늘 함께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결국 그를 당신의 구원 역사를 위해 보내십니다. 35절에 기록된 것처럼, 동족 중 하나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절대 그 일을 못한다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고 하던 심약한 모세를 하나님은 강하게 붙드셔서, 36절에 기록된 대로, 결국엔 동족을 인도해 나오게 하시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사십 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길 원하십니까?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안에 채워진 것으로 다른 이들과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내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것은 분명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며, 우리는 이 생명의 물 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미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이 타고 있는 떨기나무’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늘 풍성하게 채우시는 ‘생수의 근원’이실 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강건하게 빚으시는 ‘태우지 않는 불’이시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늘 ‘물’로 만나기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불’로 다가오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은교라는 시인이 쓴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숯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 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후시시 후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일반적으로 이 시는 1980년대 한국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배경으로 이해되곤 합니다. 문학에서 보통 물은 연합과 평화, 그리고 치유를 상징하며, 불은 대결과 투쟁, 그리고 정화를 상징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시는 그 시대적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물로 상징되는 연합과 평화의 세계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물로 만날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은 불로 상징되는 대결과 투쟁이 요청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정화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흐르는 물로 만나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그래서 넓고 깨끗한 하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 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의미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누군들 하나님과 물로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늘 하나님과 더불어 물로 흐르며 죽은 나무뿌리를 살리고 내가 닿기 원하는 곳에 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젊은 시절 모세가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쓰임 받기 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잘 됩니까? 우리 안에 부정하고 지저분한 것들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들어 부은 들, 우리를 통해 생명의 물이 흘러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될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잘 아시기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로 만나자 하십니다. 그 불 같은 고난과 회개, 그리고 정화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강하고 깨끗게 하신 다음, 우리와 함께 생명의 물로 흐르며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불 지난 뒤에 나타날 넓고 깨끗한 하늘로 사랑하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물로만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을 불로 만날 각오를 하십시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음을 노력하십시오.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낙망치 말고, 그 속에서 내려놓음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 드리십시오.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쓰임 받기 원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저희가 잘 지나게 하셔서, 당신이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정금 같이 되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